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공연 영상화

# 온라인까지 멈춘 공공 공연장 장기 대책 세워야

코로나19 여파 공연 실종 무대 정상화 시기 안갯속 다른 지역은 온라인 가동 제주도 유사 사태에 대비 영상화 작업 기반 마련을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겨울이 길어지고 있는 제주지역 공공 공연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1월 말부터 공연 연기·취소 소식 하나둘 이어지더니 한달 넘게 활동이 멈춘 상태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온라인 콘텐츠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제주 상황은 어떨까.

▶서울 예술의전당 영화화 사업 발=서울 예술의전당은 일찍이 공연 영상화 작업에 뛰어 들었다. '썩(SAC) 온 스크린'으로 불리는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돼 예술의전당 대표 레퍼토리를 꾸준히 영상에 담아오고 있다. 제주아트센터 등 도내 공공 공연장에서도 예술의전당 공연 실황 영상을 가져와 제주 관객들에게 선보여왔다.

정부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영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우수 공연을 선정해 네이버 TV 등으로 중계하고 있다. 중계 목록엔 연극 '양상발', 뮤지컬 '행보', '여명의 눈동자' 등이 들었다. 단발성이긴 하나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등과 협업해 무관중 공연 온

라인 생중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비해 제주에서는 공공 공연장이나 제주도립예술단에서 공연 장면을 매년 기록용으로 녹화하지만 이를 온라인으로 공유한 사례는 없다. 일부 국립예술단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 실황의 한 토막을 동영상 채널로 올린 곳이 있지만 본격적인 시도는 아니다.

▶온라인 콘텐츠 확장 별도 준비 필요=코로나19를 계기로 공립 시설이나 단체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오프라인 공연이 정상화되는 날만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되 공연장이 보유한 작품 등을 SNS나 동영상 채널을 통해 관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일도 공연 할

등의 하나다. 제주도립무용단을 운영하는 제주도문화진흥원 측은 이같은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영상화 사업에 맞춰 별도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동영상 채널로 재전송하려면 그에 따른 공연 전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기존 오프라인 무대에 더해 추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제주도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김호봉 주무관은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공연 영상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여건이 되면 7월 예정된 도립예술단 오페라 작품을 영상화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서선영



이범주



이재욱

## 도립예술단 첫 오페라 주·조역 확정

공개 오디션·초청 방식으로 7월 공연 앞두고 10명 선정 5월 16일 제작발표회 예정 제주 성악가 발굴은 과제로

7월에 첫선을 보일 제주도립예술단 제작 오페라의 주·조역이 확정됐다. 국립오페라단 상근 연출가를 지낸 이의주씨가 연출자로 나서는 이번 오페라는 도립무용단,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 등 5개 예술단이 처음 만드는 합동 작품이다. 제주도와 5개 도립예술단은 이탈리아 남부를 배경으로 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팔리아치' 두 편을 올리기로 하고 최근 공개 오디션 등을 통해 주요 배역을 뽑았다.

오디션으로 선발된 배역은 두 작품 주·조역 10명 중에서 7명이다. 나머지 3명은 초청 방식으로 국내 성악가를 선발했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소프라노 서선영(산투차 역), 테너 이범주(투리두), 바리톤 이규봉(알피오), 메조 소프라노 정유진(맘마 루치아), 소프라노 고예진(로라)씨가

참여한다. '팔리아치'는 테너 이재욱(카니오), 바리톤 최병혁(토니오), 소프라노 박현진(네타), 테너 이사야(베페), 바리톤 임희성(살비오)씨가 무대에 오른다.

제주도는 오디션을 통과한 바리톤 이규봉과 최병혁, 소프라노 박현진이 수준급의 기량으로 국내 오페라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이라고 했다. 오디션에서 최연소로 선발된 고예진씨는 제주 출신으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조역 확정에 따라 제주도는 5월 16일 오후 4시 제주아트센터에서 제작발표회 겸 프리뷰콘서트를 갖는다. 다만,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무관중 SNS 실시간 중계나 최소 인원 초청 공연이 될 수 있다.

반면 이번 오페라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도립예술단 역량이 모이는 무대임에도 도립 합창단원을 포함 제주에서 활동해온 성악가들이 주·조역 명단에 없다. 제주 성악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블캐스팅했던 다른 공연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선희기자



## 코로나 극복 연대와 나눔의 예술

'코로나&마스크' 전시 내달 온·오프라인 진행 판매 수익 마스크 지원

코로나19를 연대와 나눔으로 이겨내려는 예술가들이 있다. 제주그래피(대표 이재정)와 사진포털 포토마(대표 하춘근)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코로나&마스크' 전시다.

제목에서 짐작하듯 이번 행사는 초유의 감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내의 예술가들이 작품 전시, 판매, 기부를 통해 위대한 처한 이웃에게 다가서는 예술 운동의 하나로 추진된다. 작품 판매 수익 일부를 마스크 구매 지원에 쓰는 전시다.

참여 작가는 강부연 권홍 김도훈 김영훈 배인석 변성진 사운수 채명섭 하춘근 한정구 홍순창 등 회화, 사진,

문학까지 장르 구분없이 30여 명에 이른다.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숫자의 의미를 살려 12만원부터 작품 판매가가 매겨진다.

온라인 전시는 플랫폼 포토마에서 이르면 4월 초부터 실시된다. 오프라인 전시는 제주시 봉개동 아트인명도암의 후원으로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이루어진다. 마스크는 인화로 협동조합과 늘봄작작소의 제작 지원으로 (사)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산시민모임 봄, 제주 동광도마을로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문화가 짝지

#### '빛의 벵커' 관람 시간 변경

반 고흐의 명작을 디지털 기술을 입혀 몰입형 미디어아트로 재탄생시킨 '빛의 벵커: 반 고흐'전이 코로나19 여파로 4월 한달 동안 관람 시간을 변경한다.

다음달 관람 가능한 시간은 종전보다 종료 시간이 1시간 줄어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빛의 벵커 측은 "매주 수요일마다 전시관과 서틀버스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 소암·기담미술관 작품 수집

서귀포시에 있는 국립미술관들이 작품 수집을 벌이고 있다.

기담미술관은 회화, 조각, 공예, 판화, 사진, 설치, 미디어 등 평면·입체 작품을 매매(구입)나 기증을 통해 수집한다. 제주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4월 10일까지 이루어진다. 소암기념관은 소암 현중화 선생의 서예 작품이나 관련 자료를 구입이나 기증으로 수집한다. 접수 기간은 4월 6~10일이다.

#### 한라도서관 수강생 모집

제주도한라도서관이 도서관 문화 강좌인 '봄 끝으로 감성을 그리다'와 '글쓰기 독서지도자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봄 끝으로 감성을 그리다'는 4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운영된다. 캘리그래피의 기본 개념과 기법을 배우고 손글씨와 일러스트 표현 활동을 이어가는 프로그램이다. '글쓰기 독서지도자 과정'은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주1회 개설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 제주도서관 성인 독후감 공모

제주도서관이 5월 31일까지 '제4회 성인 독후감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자격은 대학생을 포함한 19세 이상 일반인이다. 단, 등단한 문인이나 3년 이내 제주도서관 독후감 수상자는 응모할 수 없다. 참가자는 '제주를 소재로 한 문학과 비문학 도서'를 읽은 뒤 A4용지 3~4매 또는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로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온라인(jejulib@korea.kr)과 우편을 이용하거나 제주도서관 자료지원부를 방문하면 된다.

### '제주어대사전' 표제어 집필 본격

2024년 하반기 발간 목표 어휘 4만개 이상 수록 예정

2024년 하반기 발간 예정인 가정 '제주어대사전' 표제어 집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제주고유의 문화를 대표하는 제주어를 보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어대사전' 편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어대사전' 편찬사업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2009년 제주도에서 발간한 '개정정보 제주어사전'의 자

료를 수정, 보완하고 사용 예시를 추가해 관용어, 속담 등 어휘 4만개 이상을 수록할 예정이다.

편찬 사업을 주관하는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지난해 9월 '제주어대사전' 기본계획 수립, 집필지침 등을 마련했다. 지난 2월 집필위원을 위촉한 뒤에는 최근까지 표제어 1055개를 집필했고 올해까지 5000개 어휘의 사용법 수록과 수정 보완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진, 삽화 등 보조자료를 구축해 이용자의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사전으로 만들기로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친절한 서비스 / 감동의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해녀잠수촌

##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항상 친절과 정성스런 음식으로 최고의 음식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쑤동석**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jamsuchon/>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jamsuchon/>

**해녀잠수촌 오픈기념**

한달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도민 인증시 10% 할인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아래 태그(3개이상)와 함께 업로드시 해녀손거울 증정

#해녀잠수촌 #제주공향맛집 #제주공향아침식사 #제주성게미역국

해녀잠수촌 | 제주시 서해안로 498 | 전화번호 : 064-743-0733